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금년 1월 세계 구매관리자지수 50.7 포인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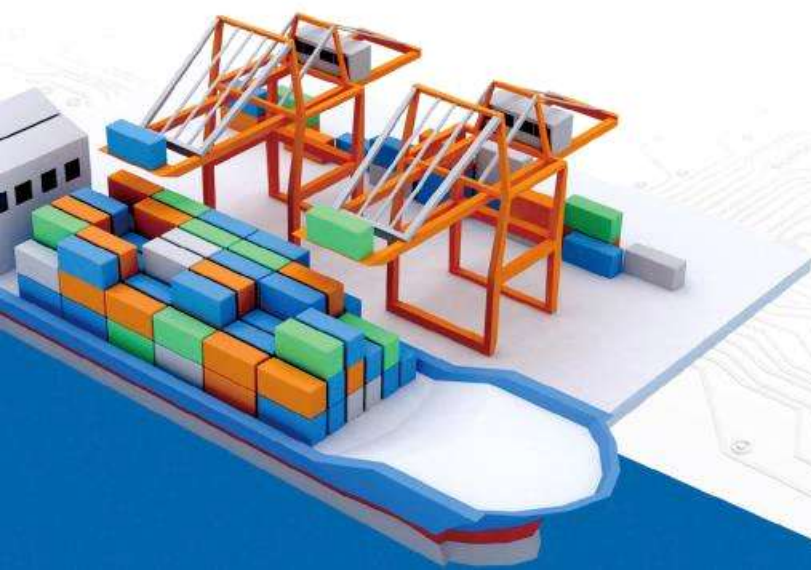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Lazada, 동남아 온라인 식료잡화·슈퍼마켓 사업 강화 시작
2. 함부르크수드,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발표
3. IBM·PIL, 금년 초 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4. 일본, 2020년 크루즈 여객 500만명 달성 불투명

명사 스피치

“현재의 시장은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공급자 중심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핵심도 품질이 될 것입니다. 화주들이 물류센터를 선택하는 기준이 가격과 입지조건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자 장기적으로 화주의 매출을 높여 줄 수 있는 ‘품질’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양원돈 유진초저온 대표이사
(2019. 2. 1. / 물류신문 인터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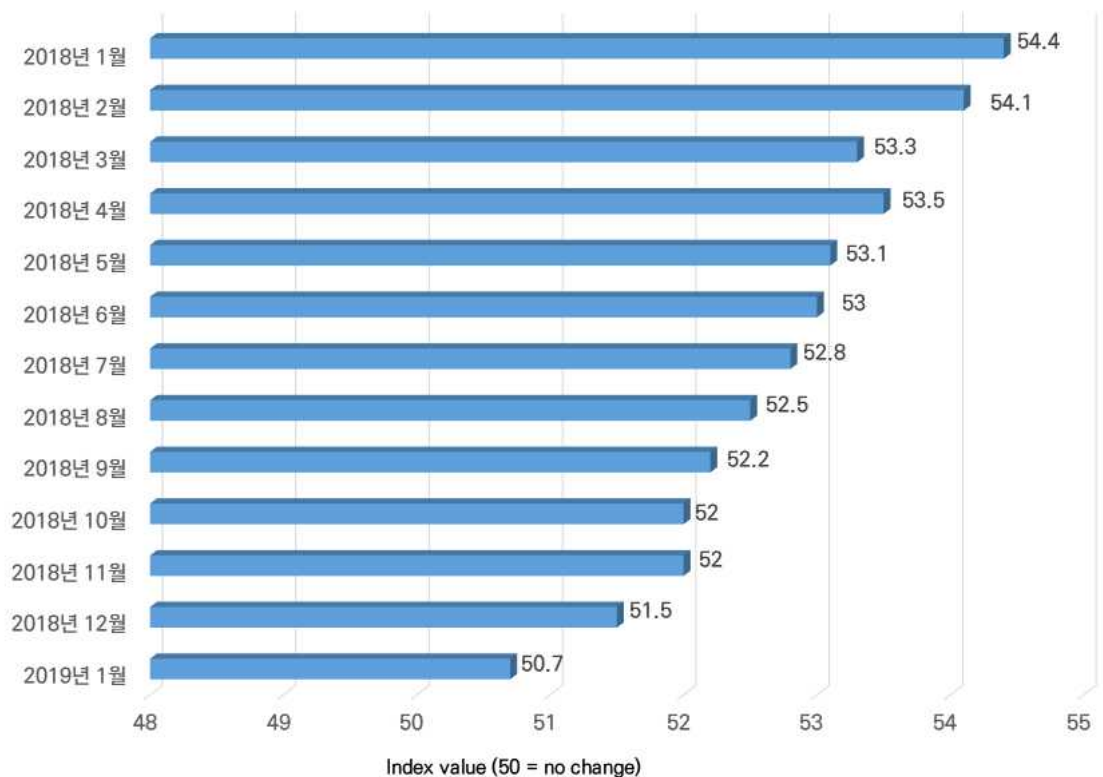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금년 1월 세계 구매관리자지수 50.7 포인트 기록

세계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 www.statista.com

- 2019년 1월 기준 세계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50.7 포인트를 기록함
 -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이며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의미함
- 경기 둔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인 50 포인트를 하회하진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포인트 하락은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Lazada, 동남아 온라인 식료잡화 · 슈퍼마켓 사업 강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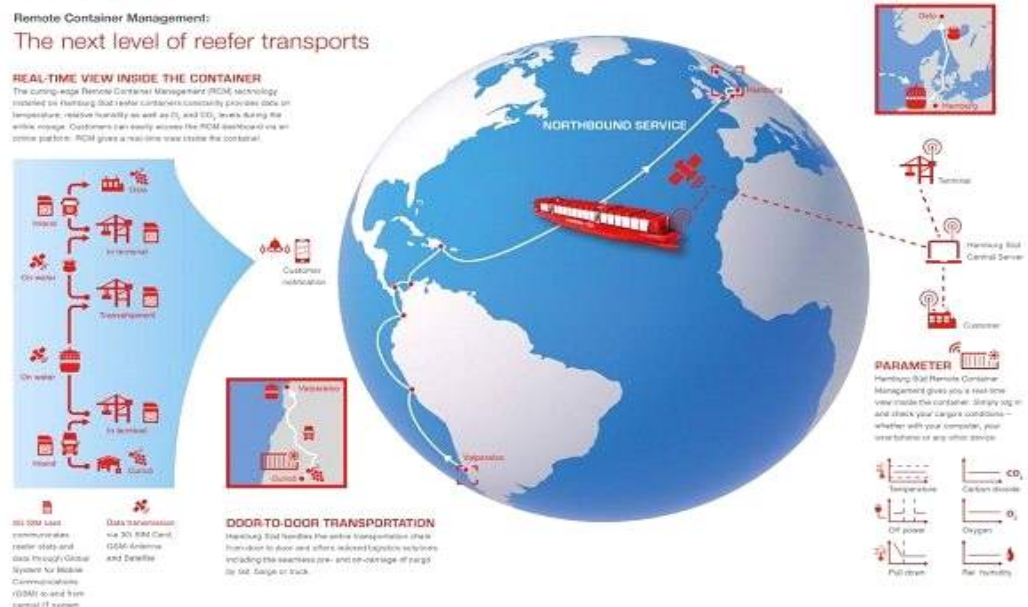
- 알리바바가 지주회사인 Lazada그룹은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사 플랫폼에 RedMart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2012년에 설립된 Lazada는 현재 동남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2016년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온라인 식료품 업체 RedMart를 인수했으며 오는 3월 15일(12:00am) RedMart를 자사 플랫폼으로 이전할 예정임
 - 확장된 플랫폼에는 고품질의 청과물, 냉동냉장육 및 해산물, 프리미엄 특산품, 이유식 및 완구, 세면용품, 가정 및 애완동물 케어 등 생필품을 포함한 16만개 이상의 식료잡화 제품이 추가될 예정임
- 새로운 RedMart는 기존 앱 및 웹사이트와 비슷한 디자인, 도구 및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Lazada의 단일 플랫폼을 통해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Lazada 플랫폼에서 RedMart를 통해 주문한 상품들은 공휴일을 포함한 주 7일, 고객이 선택한 시간대(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단위로 지정 가능)에 배송될 예정임
- 2021년 309조달러로 추정되는 동남아 식료잡화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Lazada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한 개 이상의 동남아 도시에서 식료잡화 · 슈퍼마켓 사업을 론칭할 계획임
 -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온라인으로 식료잡화를 구매하는 10명 중 7명이 이미 RedMart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남아 소비자들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온라인으로 일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Lazada의 이러한 확장 움직임은 급증하는 동남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식료잡화 쇼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Lazada는 방대한 제품과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를 결합해 동남아 온라인 식료잡화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계획임
 - 현재 Lazada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3억개의 SKUs(Stock Keeping Unit) 취급이 가능함
 - 또한 미용, 패션, 가전제품부터 생활용품, 완구, 스포츠 용품, 식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약 100개의 물류 파트너가 지원하는 퍼스트(First) 및 라스트>Last) 마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인 고객 관리 및 편리한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www.lazada.com/> 2019.1.31.

함부르크수드,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발표

- 머스크의 자회사인 함부르크수드(Hamburg Sud)는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RCM: Remote Container Management)을 이용해 연중 무휴 냉동 컨테이너선박 및 화물의 가시성을 확보할 계획임
 -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은 위성 및 무선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의 온도 및 상대 습도,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원격 조정도 가능함
 - 또한 화주들은 모바일이나 태블릿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의 상태를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음
 - 함부르크수드는 원격 컨테이너 관리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 세계 최대 무역박람회인 'Fruit Logistica (베를린 개최)'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 함부르크수드는 보유한 모든 냉동 컨테이너에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을 탑재함
 - 함부르크수드는 현재 세계 해운선사들 중 최대 규모인 37만개의 냉동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냉동 컨테이너에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기능을 적용함
 - 또한 2019년 3분기까지는 자사 보유 전체 컨테이너 선박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예정임
- 프랭크 스메트(Frank Smet) 함부르크수드 최고 영업 책임자는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은 냉동 컨테이너 시장에 진정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함부르크수드의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RCM) 개요



자료 : <https://hamburgsud.com>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Hamburg Sud Launches Satellite Monitoring Tech」, 2019.2.8. 검색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IBM·PIL, 금년 초 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 세계 10대 선사 중 하나인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은 컨테이너 운송 추적을 위해 구축된 IBM 블록체인 플랫폼의 e-BL(electric Bill of Lading·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함
 - 본 시범사업에서는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류를 전송하는데 소요되던 시간 또한 기존 7일에서 1초로 단축할 것이라고 함
 - e-BL은 기업의 문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화물의 내용이나 소유권을 인증하는 기존 BL과 같은 문서로 활용될 수 있음
-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2월 5일인 중국 춘절을 앞두고 28톤의 밀감을 중국으로 운송하는데 e-BL을 적용함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밀감 수입업체인 Hupco사에서는 3,000상자의 밀감을 수입하는데 e-BL을 이용했음
 - Tay Khiam Back Hupco사 회장은 e-BL을 통해 운송 과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은 물론, Hupco의 고객들이 보다 시기적절하게 신선한 화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음

IBM·PIL 블록체인 시범사업



사진 : IBM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bm_and_pil_launch_chinese_new_year_blockchain_trial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IBM and PIL Launch Chinese New Year Blockchain Trial, 2019.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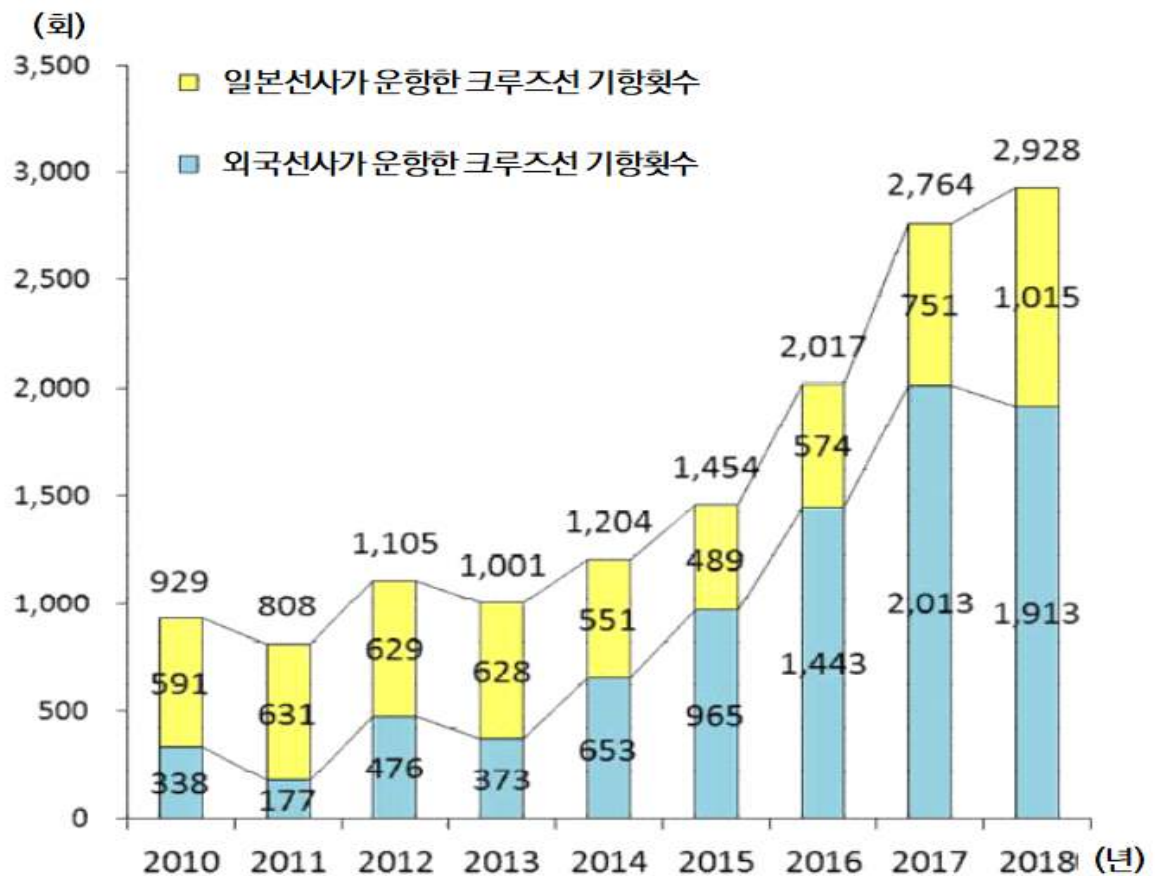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일본, 2020년 크루즈 여객 500만명 달성 불투명

- 지난 18일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2018년의 방일(訪日) 크루즈 여객수(외국인)와 크루즈선 기항 횟수를 발표함
 - 크루즈 여객수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244만 6,000명, 크루즈선의 기항 횟수는 6% 증가한 2,928 회로 조사됨
 - 기항 횟수 중 외국적 선박은 1,913회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반면 일본국적 선박은 1,015회로 전년 대비 35% 증가함
 - 출발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진 중국은 2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대만은 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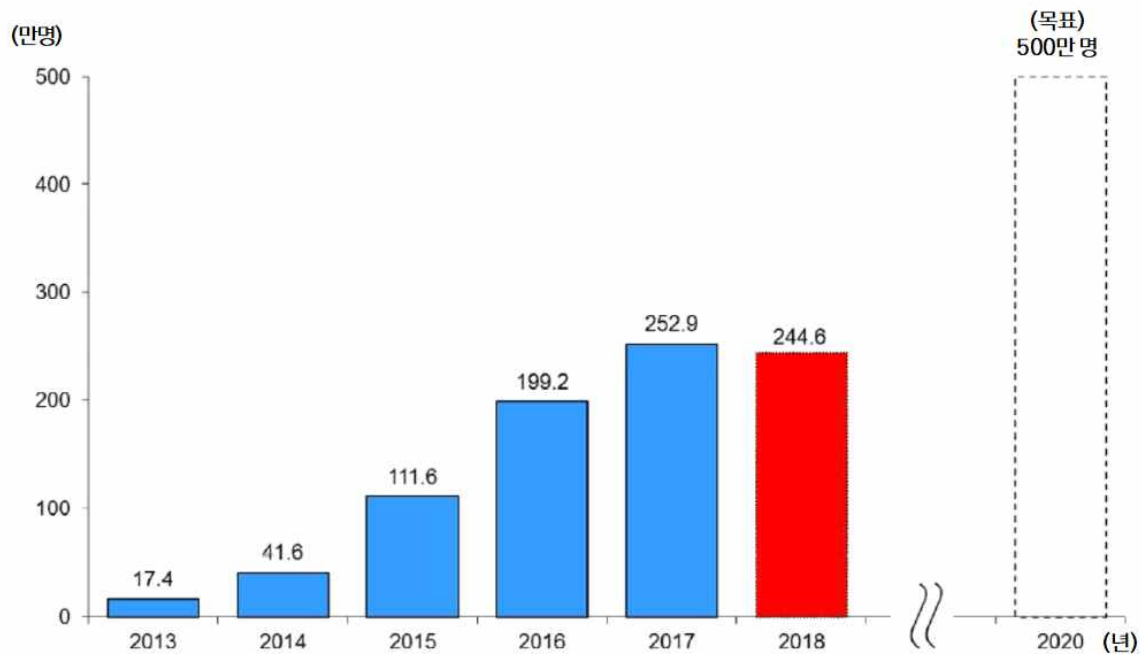
일본 항만의 크루즈선 기항 횟수(2010년~2018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 일본은 크루즈 활성화 정책 목표로 '2020년 방일 크루즈 여객 500만명'을 제시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국토교통성은 크루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만 정비,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2013년 이후 크루즈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감소세를 기록함
 - 올해 유럽의 대형 크루즈 선사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배선을 증가시키지 않는 등 현 상황에서 일본 정부 목표인 '2020년 방일 크루즈 여객 500만 명'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일본의 크루즈 여객 추이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참고자료 : <http://www.mlit.go.jp> / 2019.1.29.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